

말씀의 사람들-박인용 목사

룻 1:1-6

룻기는 성경 66권 중에서 이방 여성의 이름을 제목으로 기록한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룻'이라는 모압의 한 여인을 축복의 통로로, 생명구원역사의 줄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밀려오는 흉년

‘하나님의 떡집’을 뜻하는 풍요의 상징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흉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흉년’이 있습니다. 둘째, ‘정신적인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먹을 것이 풍부해도 마음이 허전하고 영혼은 고갈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아모스서는 ‘영적 흉년’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입니다. 넷째, 인생을 살다보면 ‘관계의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흉년이 닥칠 때 기억할 것은,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상황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 돌파하는 것, 담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움직입니다. 또 환경에 끌려 쉽게 도피합니다.

룻기 1장 1절은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집안의 가장,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었습니다. 가장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 집안의 축복과 저주의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흉년이 들자 이 집안의 아버지, 엘리멜렉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버렸습니다. 엘리멜렉이 왜 모압 지방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이 제일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흉년을 잠시 피하기 위해 풍요로워 보이는 모압을 택했습니다. 결국 이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죽고 대가 끊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삶이 매끄럽게 진행될 때뿐만 아니라 상황이 막힐 때에도 더욱 주님 음성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악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 환경이 흉년이나 기근이나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막이 옥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 우리 삶을 채우는 형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집안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등질 때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약속의 땅을 영구히 떠날 생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지 그는 현실에 닥친 생존의 문제 앞에서 쉽게 결정하고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막히지 않습니다. 상황이 막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게 믿음입니다. 상황에 붙잡혀 자기 생각대로 이리 저리 옮기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할 기

회도 없습니다.

엘리멜렉은 잠시 떠났다가 돌아오려고 했는데 십년이 흘러 버렸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룿이더라 거기 거한지 십년 즈음에”

모압에서 흘러보낸 십년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축복 속에 계산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안내를 받는 삶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은 ‘여호와와 말씀을 좇아 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간신히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왔습니다. 이 때 아브라함은 별로 고민하지 않고 애굽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애굽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떠나면 비록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땅일 지라도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반면 기근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는 잔잔한 ‘평안’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올 때까지 단을 쌓으며 예배했던 아브라함이 애굽에 와서 예배를 잃고 말았습니다. ‘좋은 쪽’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는데 예배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두려움만 있다면, 비록 풍요할 지라도 그 곳은 하나님의 땅이 아닐 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움직이는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영적인 지성소에서 천사가 임재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제일 안전지대는 주님과 동행하는 곳을 잊지 마십시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금식을 시작하고 이틀까지는 견딜 수 있었다. 4, 5일이 지났을 때 밥의 고마움을 알았다. 일주일을 통과하면서 내 생명을 지탱시켜 주는 게 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20일이 지나면서 물이 없어도 살 수 있으나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새하얗게 들어오는 공기가 온 몸에 퍼져 생명을 깨우는 것을 알게 됐다. 30일이 되면서 공기가 없어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밥도 물도 공기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흉년’을 뛰어넘는 믿음

각 사람마다 은사대로 세움 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은사의 자리를 피해서 도망하면 안 됩니다. 음성 듣고 왔으니 음성 듣고 움직이고 파송 받고 땅 끝까지 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음성을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할 때 에서 보다 더한 라반을 만났습니다. 도망할 생각을 아예 포기하십시오. 믿음으로 ‘관계의 흉년’도 뛰어넘으십시오. 6절입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는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양식을 주셨습니다. 흉년을 피해 도망했는데 곧 그 땅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모스신과 몰렉이라는 가증스런 우상을 섬기는 지역, 모압 땅에 와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얻은 것은 모압 여인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도망하면 죄 밖에

지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잃은 장소로 돌아올 때까지 허비한 기간은 잃어버린 시간, 상급이 없는 시간, 세상 죄에 맡겨진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산 여러분의 세월을 한 순간도 마귀에게 팔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십시오. 말씀을 의지하면 홍해에 직면해도 지름길이 열립니다. 사방이 막힐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판단해도 파멸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근이 많은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 형통케 되는 길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신뢰하고 놓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